

담 임 목 사: **임철성** Rev. Chul Sung Lim

부목사(KM): 정진부 (214) 734-0815, 전희준 (224) 551-0775

부목사(EM): Yun Choi (847) 971-7242, John Kim (248) 894-2106

협 동 목 사: 서요셉 김태한 김영래 김주현

교육전도사: 이영걸 유진경 Jonathan Kim

시 무 장 로: 김종규 손기원 임명기 한성호 이병준 김승식 유진하 이병기

휴 무 장 로: 정병철 김형곤 이훈 우현중

은 퇴 장 로: 김사무엘 정규상 함성택 허만춘 김광근 이기수 함용철 강진산 김인철

김광식 용성순 함덕준 박양성 김언한 김순철

제1815호 2020년 1월 12일

##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

막이 내려온 느낌이었습니다. 4년 동안 시편 119편 176절의 말씀을 22번에 걸쳐 나 누었습니다. 마치 4막 22장의 대장정을 모두 마쳤다는 커다란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 니다.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1연씩 8절에 주의 말씀을 가득 담아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은 말씀 예찬이며 간구입니다. 영국 강해설교자 크리스토퍼 애쉬의 책을 참고하 며 주제를 “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” 로 정했지요. 이 주제는 저의 기도였습니 다. 그 이유를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멍에 같았 기 때문입니다.

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부터 성경은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. 취학 전부터 여섯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아래 위로 읽는 옛날 성경을 펴고 매일 한 장씩 읽으며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. 아버지는 (그 당시에는 목사도 아니셨는데...) 달력 뒤에 줄을 긋고 성경 제목과 식구들의 이름을 적고 다 읽을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게 했습니다. 동그라 미 숫자는 곧 용돈의 액수와 비례합니다. 교회에서는 반평생 이상을 성경으로 목조르 기를 당해왔습니다. 그 후엔 제가 교인들의 목을 즐겼지요. 그러니 성경이 무거운 멍에 같았던 것입니다.

이제 “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90일 성경통독” 을 4번째 시작하게 됩니다. 헤 브론지 53호에 실린 열 한분의 간증들을 꺼내 읽으니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. 눈에 질병이 있어 어려움을 겪던 한 성도님을 심방하였는데, “눈이 멀어도 좋으니 성경통 독을 마치게 해주세요” 기도하며 통독을 마치셨다는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. 두고 두고 마음이 울리더군요. 통독 수료 첫 해 231명, 둘째 해 92명, 셋째 해 108명...금년에는 어떨까요? 올해 더 많은 간증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. “말씀의 기쁨 을 누리게 하소서”

2020. 1. 12. 임철성 목사 올림

갈릴리 : 1982년 이후 / 38세 이하 기혼

기브온 : 1981-70년생 / 39-50세 남자

1마리아 : 1981-76년생 / 39-44세 여자

2마리아 : 1975-72년생 / 45-48세 여자

3마리아 : 1971-68년생 / 49-52세 여자

1베드로 : 1969-66년생 / 51-54세 남자

2베드로 : 1965-62년생 / 55-58세 남자

3베드로 : 1961-58년생 / 59-62세 남자

1에스터 : 1967-65년생 / 53-55세 여자

2에스터 : 1964-62년생 / 56-58세 여자

3에스터 : 1961-59년생 / 59-61세 여자

4에스터 : 1958-56년생 / 62-64세 여자

1엠마오 : 1957-54년생 / 63-66세 남자

2엠마오 : 1953-50년생 / 67-70세 남자

3엠마오 : 1949-46년생 / 71-74세 남자

1루디아 : 1955-53년생 / 65-67세 여자

2루디아 : 1952-50년생 / 68-70세 여자

3루디아 : 1949-46년생 / 71-74세 여자

1안디옥 : 1945-40년생 / 75-79세 남녀

2안디옥 : 1939년 이전 / 80세 이상 남녀

